

'뜨거운 팬심' 선두 KIA, 흥행도 1위

2024 KBO리그 역대 최소 경기, 최초 전반기 600만 관중 돌파 초읽기

KIA, 평균 관중 1만7천763명, 1위 LG 1만8천604명 이어 2위 전반기 매진 17차례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래 최초...증가율 77% 1위



'뜨거운 팬심'으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KBO리그 흥행 동풍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2일 현재 2위 삼성에 2.5게임차 앞선 선두에 자리한 KIA는 전반기 홈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평균 관중수가 1만7천763명(39경기-총 관중 69만2천744명)으로 1위 LG 1만8천604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반기 평균 관중 수 1만34명(39경기·39만1천336명) 대비 무려 77% 증가한 수치로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2위 한화의 51% 관중 증가율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인 수치다.

올 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전반기 매진 사례는 총 17회로 2017년 수립한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10차례)을 이미 넘어섰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관중 증가는 이범호 신임 감독의 KIA가 시즌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달리면서, 7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KBO 리그 역사상 5번째로 전반기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김도영이라는 결출한 스타가 탄생하면서 흥행의 불씨를 당겼다.

전반기 홈 경기가 가장 많이 매진된 달은 5

월이었다.

총 14경기가 치러졌고, 이중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던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포함, 총 8경기가 만원 관중을 기록했다. 4월(10경기)과 6월(12경기)은 각각 4차례 매진됐다.

이 같은 KIA 타이거즈의 선전과 더불어 각 구단들의 치열한 순위 다툼에 힘입어 올 시즌 KBO의 전반기 리그도 600만 관중 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2일 현재 1위 KIA(0.582)와 5위 SSG(0.506)와의 승차는 6게임이다. 최하위 키움(0.430)과 SSG와의 승차도 6게임에 불과하다.

6위 NC(0.481), 7위 롯데(0.467), 8위 kt(0.45

7, 9위 한화(0.449)도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고 있다. 현재 분위기가 후반기에도 이어진다면 4할대 승률을 기록하고도 최하위에 머무는 팀이 나올 수 있다.

KBO 리그는 지난 2일 경기까지 408경기에 누적 관중 592만9천395명으로, 600만 관중 달성까지 7만605명을 남겨두고 있어 10경기 남은 전반기 내 600만 관중 달성이 유력하다. 달성 시 역대 KBO 리그에서 전반기에 600만 관중 돌파는 처음이다.

또한 전반기 최대 418 경기까지 가능한 가운데, 2012년 419경기 시점에서 600만 관중을 돌파한 기록을 넘어 역대 최소 경기 600만 관중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순위 싸움에 힘입어 KBO 리그 10개 구단 모두 평균 관중 1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평균 관중은 1만4천533명이며, 지난 시즌 각 구단 별 홈 동일 경기 수 대비 관중이 32% 증가한 수치다. /주홍철 기자

2024년 구단별 관중 현황(2023-2024) 홈 경기 수 비교

<2일 현재>

구단	홈 경기수	매진 경기수	평균 관중(명)		총 관중(명)		증감(%)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두산	45	15	17,356	12,544	781,027	564,499	38
LG	39	11	18,604	16,359	725,538	638,017	14
KIA	39	17	17,763	10,034	692,744	391,336	77
롯데	41	8	16,461	13,376	674,902	548,415	23
삼성	40	12	16,437	11,756	657,483	470,347	40
SSG	41	4	15,068	14,520	617,784	595,313	4
한화	42	30	11,291	7,473	474,221	313,875	51
kt	40	7	11,838	9,201	473,507	368,026	29
키움	43	6	10,158	7,716	436,809	331,791	32
NC	38	6	10,405	7,292	395,380	277,095	43
합계	408	116	14,533	11,026	5,929,395	4,498,714	32



광주FC 창단 첫 해외 진출 1호 엄지성. <광주FC 제공>

광주FC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 EFL 챔피언십 스완지시티 간다

광주 "선수 의사 적극 존중...대승적 차원 엄지성 꿈 응원"

프로축구 광주FC의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22)이 영국 EFL 챔피언십 소속 스완지시티 AFC로 이적을 확정했다.

광주는 3일 오후 5시 구단 노동일 대표이사과 스완지시티 대표간 화상 회의를 통해 이적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엄지성의 스완지시티행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엄지성은 산하 유스인 광주FC U18 금호고 출신으로 2021년 졸업과 동시에 콜업돼 프로 무대를 밟았다.

프로 첫 해 37경기 4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28경기 9골 1도움으로 K리그2 베스트11 선정은 물론 K리그2 영플레이어상까지 수상하는 등 팀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다.

또 같은 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발탁, 아이슬란드와의 친선경기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는 등 이름을 알렸다.

엄지성은 이정효호의 핵심 자원으로 빠른 발과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좋은 슈팅 등을 앞세워 최전방과 2선을 오가며 창의적인 공격 전개로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2023년 팀 최고 성적인 리그 3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견인한 엄지성의 활약을 지켜본 스완지시티는 적극적인 영입 의사와 함께 지속적인 구애를 보내왔으며, 이에 광주는 선수의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 협상을 진행했고 이적을 확정지었다.

스완지시티는 과거 기성용(서울FC)이 뛰었던 팀으로 국내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구단이다.

기성용이 활약할 당시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잉글랜드 풋볼리그 챔피언십(EFL)에 소속돼 있다.

한편, 광주 구단은 주중 엄지성과 팬들의 마지막 만남을 할 수 있는 환송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희중 기자

KIA 장현식, 올스타전 막차 합류



KIA 타이거즈 구원투수 장현식 등 4명이 2024 KBO 올스타전 막차를 댔다.

한국야구위원회는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올스타전 출전 선수 4명을 교체했다고 3일 밝혔다.

황성빈은 파울 타구에 종아리를 다친 기예르모 에레디아(SSG)를 대신해 출전 티켓을 잡았다.

팬 투표 최다 득표에도 어깨를 다쳐 출전하지 못하는 마무리 투수 정해영(KIA)을 대신해서는 팀 동료 장현식이 선발됐다.

올스타 투표 중간투수 부문 차점자인 주현상(한화)이 감독 추천 선수 몫에서 베스트12 몫으로 옮겨감으로써 장현식이 감독 추천 선수 자격으로 빈 자리를 채운 것이다. /연합뉴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야수 박지환(SSG), 송성문(키움)이 각각 손호영(롯데), 이우성(KIA)을 대체했다. 손호영은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을 다쳐 전반기를 쏠지 마감했고 이우성은 허벅지 힘줄 손상이 발견돼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KBO 올스타전은 오는 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조영기 전남도체육회 고문 세계태권도무덕관 중앙관장 취임

'태권도 대부' 조영기 전남도체육회 고문이 세계태권도무덕관 중앙관장에 추대됐다.

전남도체육회는 3일 "조영기 고문(9단·사범)이 최근 경기도광명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무덕관 중앙관장 2024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가결로 중앙관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무덕관 원로인 조영기 중앙관장은 영광 출신으로 전남태권도협회장, 전남도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남 체육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고등학교 시절 무덕관 황기 관장으로 부터 당수도 배워면서 태권도를 시작한 조영기 중앙관장은 1987년 영광태권도장을 개관하고 현재까지 70여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후진 양성에 전념해오고 있다.

조영기 중앙관장은 전 태권도 9단회 초대회장 및 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2023년 8월 '무도,



훈을 담은 승부'라는 자서전을 출판하기도 했다.

조영기 중앙관장은 "인생 80 중반의 나이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태권도로 다져진 체력과 무도정신에서 뿌리내린 율곡은 정신이 원동력"이라며 "남은 여생 역시 태권도 발전을 위해, 태권도와 함께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제7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은 동강대 야구부. <동강대 제공>

동강대 "이번엔 우승이다"

전국대학야구선수권, 6일 중앙대와 조 1위 다툼

동강대 야구부가 '제7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 토너먼트에 진출하며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동강대는 오는 6일 충북 보은스포츠파크 A구장에서 중앙대와 A조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조별리그 2승1패로 최소 조2위를 확보하며 각 조 2개 팀에 주어지는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된 동강대는 2021년 대회 준우승 이후 역대 최고 성적에도 전한다.

동강대는 지난달 25일 '대학야구 전통의 강호' 건국대를 제압한 뒤 동아대에 아쉽게 패했지만 수성대와의 3차전에서 10대5,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김다이지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 조2위를 확보한 동강대는 중앙대(3승)와 마지막 경기에서 조1위를 놓고 경쟁한다.

동강대 투수 김유현(20)은 이번 대회 2경기에 출전해 2승을 거두며 맹활약하고 있다.

김유현은 지난달 열린 '한화 이글스배' 고교 올스타전에서 2승을 거두며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한편, 2004년 창단한 동강대 야구부는 매년 꾸준한 성적으로 대학야구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강대는 오는 9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리그' 왕중왕전과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광주 시대표로 출전한다. /김다이지